

2025 년 6 월 2 주차 각 지역 소식



🌐자카르타

- ✔인니.중국 12 개 전략적 MOU 체결(금융,관광,무역) 인니산 냉동 두리안 수출협약 체결
- ✔4 월 인니 대외 교역량 큰 폭 증가(비 석유가스부문 물량 증가,인니 제조업 기타 산업 역량 신장 신호
- ✔6 월해상-HMM 만 소폭인상,항공-지난달 운임 유지
- ✔6 월 9 일 인니 휴일

🌐싱가포르

- ✔싱가포르항 혼잡 악화.수 일 단위 체선 증가
- ✔창이공항 제 5 터미널 착공,연간 5 천만명 추가 수용
- ✔창이공항 전체 수용능력 1 억 4 천만명으로 증가.2030 년 완공 예정
- ✔티웨이, 8 월부터 제주-싱가포르 주 5 회 정기 운항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유라시아 전역 물류 강화 위한 남북국제교통회랑 프로젝트 수립
 - ✔쿠알라룸푸르 지역 물류 부문 임대료 전년 대비 5%상승.전자상거래,제조업 부문 지속적 수요 원인
 - ✔DHL,조호르주에 남부 지역 허브 개소.세나이 공항 자유무역지대에 위치. 총 1 억 링깃 투자.
-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간 물류운영강화목표.

🌐홍콩

- ✔美하버드대 유학생 금지 조치 후 홍콩 소재 대학 지원자 급증
- ✔세계 4 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PWC 홍콩,약 50 명 파트너 해고,일부 부서 최대 30% 급여 삭감
- ✔홍콩익스프레스 CEO 자넷마오,홍콩 여행객에게 일본을 대체할 새로운 관광지로 베트남과 한국 강조
- ✔홍콩발 미주 컨테이너 운임 전월 비 급등, 포트 별로 최소 50% 이상 상승

🌐심천

- ✔심천항 엔티엔 터미널,올해 해운성수기 6~7 월로 앞당겨져..장치장 설비자원 투입 증가

🌐충칭

- ✔딥시크,R1 업데이트..."오픈 AI 최고모델성능 근접

🌐샤먼

- ✔샤오펑자동차,신차 출시 1 시간만 1 만 3 천대 판매

🌐불산

- ✔테무 모기업 핀뒤뒤,1 분기증가율 10%까지 둔화...주가 20% 급락

🌐상해

- ✔5 월제조업 PMI 49.5 포인트로 경기 수출 국면
- ✔新에너지 자동차업계 출혈 경쟁 심화...공급 과잉,재고 증가로 이중고
- ✔4 월까지 중국항만 컨테이너물동량 1.12 억 TEU 로 7.9%증가
- ✔上海항,'미주노선'화물폭주로 선박 확보 난항
- ✔주요 정기선사,미주항로 수송력 투입 증가..6 월하순부터 수급 균형 전망
- ✔美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인상(25%→50%)
- ✔中,무비자 입국 적용 국가 범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 ✔세계 최장 해저 고속철,상하이-저우산까지 잇는다

🌐광저우

- ✔단오절연휴 3 일(5.31-6.2)광둥성 누적 관광객수 전년 동기 대비 20%증가 2,321 만명

🌐청도

-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 센터 창고, 위해 국제물류단지 내 설립,서비스 개시

🌐천진

✔4월까지 대런 해관 46,900 대 국산 자동차 수출 전년 동기 대비 51%증가

🌐태국

✔태국·캄보디아 국경 충돌 이후 양국 관계 급속 냉각,국경 검문소 다수 폐쇄 예정

✔인도-태국,무역·관광 중심으로 협력 강화 모색

✔태국,신형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12 대 도입

✔'동성혼 합법화' 태국,성소수자 겨냥 마케팅 관광업 살리기

✔백석대,태국 치앙라이에 글로벌에듀케이션 센터 개소

✔기항지 체선으로 태국발 스케줄 딜레이 심화

✔태국발,망고 출하 물량으로 6월까지 항공 스페이스 부족 및 카고 롤-오버 상황

🌐하노이

✔하노이발 인천,미주착 항공운임 보험세

✔하이퐁발 미주,유럽항 해상운임 강세

✔미국 재무부,한국 외 베트남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두산에너지 베트남발 전자회사 두산비나,HD 현대에 매각 추진

✔베트남 공공 개혁,5개월만 공무원 10만명 감축 완료

🌐호치민

✔SK 그룹,베트남 LNG 발전 투자 확대 추진...포괄적 에너지솔루션 구축 계획

✔베트남,美농림수산물수입 대폭 늘 듯...양국 기업 다수 MOU 체결

✔美관세 베트남 기업 10곳중 8곳, 비용 부담 늘어

✔베트남,제조업 경기위축 국면...5월 PMI 49.8 두달연속 기준치 하회

🌐대만

✔에버그린·완하이 웃고 양밍 울고,대만 3 대선사 1분기 희비교차

✔TSMC,강력한 AI 수요에 올해 이익 사상 최대 예상

✔대만 코로나 19 확산세..."6월말환자 20만명 예상

🌐마닐라

✔6월 12일 독립기념일(공휴일)

✔6월 15일부터 세관통관비 인상예정

✔접안 예약없이 먼저 도착하는 선박부터 접안가능

▶주간 사항 요약

Container 미주항로 중심 강세 계속, 美 관세 판결 영향 미미

Bulker 일시적인 철광석 수요 집중과 브라질 곡물 수출 증가로 운임 상승

▶Container

	6/6	5/30	증감
SCFI	2240.35	2072.71	▲ 167.64
美서안	5,606	5,172	▲ 434
美동안	6,939	6,243	▲ 696
유럽	1,667	1,587	▲ 80
지중해	3,302	3,061	▲ 241
동남아	446	441	▲ 5
중동	1,929	1,692	▲ 237
호주	686	709	▼ 23
남미	3,959	2,797	▲ 1,162
日서안	315	315	-
日동안	320	320	-
한국	138	139	▼ 1
동서Africa	4,230	4,060	▲ 170
남Africa	2,301	2,242	▲ 59

*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종합 SCFI 5 주 연속 상승, 트럼프 상호 관세 판결 영향 無, 강세 지속

1. 美中 유예기간 내 미국향 선적 수요 강세를 보이며 선복 부족 심화, 북미 운임 급등세. 선사의 북미항로 선복 재배치 계획에 따라 연근해, 오세아니아 제외 전 항로 운임 강세
2. 美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장 운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현재 트럼프행정부는 집행 정지 신청과 동시에 상고한 상태이며 이번 판결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에 의거한점이 위법임을 고려할 경우, 타 법안을 통해 현 정책의 방향성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
3. 6/9 美中은 런던에서 무역협상 진행 예정, 합의 정도에 따라 현 관세 정책에 변화가 야기될 수 있어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

미주항로 美 서안 7 주 연속 상승, 단기 수요 강세로 인한 운임 급등세

1. 최근 운임 급등으로 인해 미주항로 선박 재배치 계속, 7 월까지 서부항로에는 역대 최대 수준의 선박 투입 예상. 수요 강세는 유예기간 동안 지속 예상되나 대규모 공급 증가로 인해 향후 운임 상승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2. 화주들이 유예기간 내 미국까지 빠른 운송을 선호하여 동부 대비 서부항 수요가 더강세를 보일 것 보이며, 일각에서는 향후 LA/LB 항 혼잡 심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제기. 터미널, 트럭, 샷시, 철도 등 1 개 요소에서 문제 발생시 혼잡 확대 가능성 있음

유럽항로 3 주 연속 상승, 미주 강세 여파로 유럽항로 운임 동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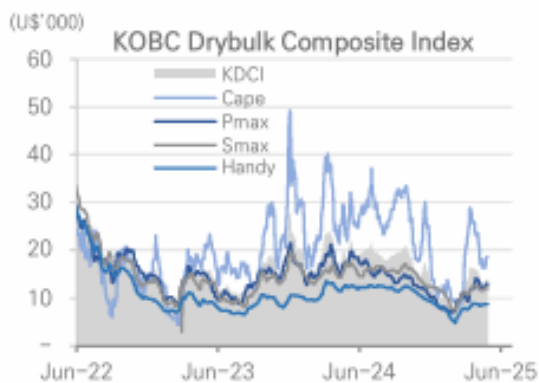
1. 미주항로 선박 투입 증가로 유럽항로에서는 공급 축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사들은 6 월 초 1 차 GRI 성공 후 추가 운임 인상을 추진 중
2. 단기 운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추가 GRI 를 통한 운임 인상폭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전망. 현재 유럽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수요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초대형선 투입 항로가 일부 지역으로 제한됨에 따라 상승세는 타 중장거리항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연근해/기타 동남아 4 주 연속 상승

1. 최근 중-미간 수요 강세로 아시아 주요항만 혼잡 심화. 상해, 닝보 등 중국 주요항 외에도 싱가포르, 포트클랑 등도 대기 증가세. 혼잡이 장기화 될 경우 실질 선박 감소로 이어지며 운임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전망

▶ Bulker

		6/5	5/30	증감
KDCI		14,951	13,566	▲ 1,385
Cape	평균	25,780	19,116	▲ 6,664
	F/H	39,750	34,525	▲ 5,225
	T/A	19,300	13,688	▲ 5,612
	Pac RV	24,375	17,575	▲ 6,800
P'max	평균	9,932	10,462	▼ 530
	F/H	15,182	15,750	▼ 568
	T/A	8,498	8,938	▼ 440
	Pac RV	8,549	8,950	▼ 401
S'max	평균	11,218	11,393	▼ 175
	F/H	15,184	15,573	▼ 389
	T/A	14,112	14,337	▼ 225
	Pac RV	10,357	10,364	▼ 7



Cape 美 행정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인상

1. 철광석 생산업체들이 미리 선박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 후반에 화물이 대거 시장에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가용 선박이 빠르게 소진되어 운임 급등
2. 6/4 美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 에서 50%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하였고 무역대표부(USTR)는 전 세계 주요 교역국에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 미국 내 철강업계는 관세 인상을 환영하는 반면,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업체 비용 부담 증가와 소비자 물가 압력 확대를 우려
3. 중국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5 월에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해 신규 주택 판매 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하는 등,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외부 압박과 더불어 내수 경기 둔화가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
4. 전문가들은 지난해 9 월 시작된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물가 하락과 함께 기업 및 가계의 소득 감소로 인해 점차 효력을 잃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 위축 현상이 부동산 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분석. 특히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며 실질적인 회복은 전국민의 소득과 자산 증가 같은 구조적인 조건하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

Panamax 브라질 곡물 수출 회복세

1. 5월 브라질의 대두 수출은 1,420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하며 수출 강세를 보인 반면, 옥수수는 68,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급감. 6월에는 대두 수출이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옥수수는 전년 대비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2. 브라질의 대두 수확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지역 생산량이 상향 전망. 옥수수는 마투그로스 주를 중심으로 한 사프리카 작황 개선 덕분에 상향 조정되었지만 최근 비와 저온, 서리로 인해 중남부 지역의 수확 진행은 지난해보다 지연
3. 아시아 열탄 시장에서 중국과 인디아의 수입 감소 속에 베트남이 주요 수요국으로 부상중. 이는 8%의 경제성장률 목표와 맞물린 전력 수요 증가, 정부의 석탄 확보 지침 등으로 인함
4. 유럽 주요 5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사상 최대치와 풍력회복, 프랑스 원전 가동률 상승 등으로 인해 전력 공급이 풍부해지고 봄철수요 감소까지 겹치며 석탄 발전량이 12% 감소하며 사상 최저 수준 기록
5. 아시아 열탄 시장은 중국과 인디아의 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브라질 등 남미지역 곡물 수출량이 금주 상황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Supramax 선박 과잉 구조 지속

1. USG 지역의 곡물, 펠릿 등 화물 유입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양대 수역 모두 전반적으로 화물 부족과 선박 과잉 상태가 지속되며 하락세
2. 대서양은 남미와 지중해에서 신규 화물 부족으로 화주 측의 운임 인하 요구가 거세어 약세 압력이 가중되며 하락세
3. 태평양은 인도네시아 석탄 화물 수요가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선박 공급은 여전히 과잉 상태로 인해 하락세 지속
4. 화물 부족과 선박 공급 과잉 구조에서 모멘텀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며 당분간 악보합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

상기 작성된 자료의 중 일부는 해양진흥공사의 공식 패널로 참여 된 기업으로써 해당 부서의 승인 후 배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원 상무 / Kai Kim / Managing Director



07642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95 (내발산동, 맥익스프레스 빌딩)

Tel : +82-2-2661-3401(ext.704)

Fax : +82-2-2661-3403

Mobile : +82-10-5139-9985

E-mail : kai@mcexpress.co.kr

URL : www.mcexpress.co.kr